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인식하는 진로상담 역량탐색

Exploring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Recognized by School Sports Coaches

임효성(상명대학교 특임교수) · 김경지*(한국체육대학교 강사)

Hyosung Lim Sangmyung University · Kyung-Ji Kim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인식하는 진로상담 역량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각급 학교운동부 소속 지도자 16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진로상담역량에 대한 개방형 문항을 구성하여 수행되었으며, 자료분석은 귀납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상기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에 대한 개념은 학업 및 직업(198개, 57.39%), 자기 인식 및 이해(108개, 31.30%), 진로(30개, 8.69%), 조언(9개, 2.6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역량 중 지식은 진학(79개, 34.05%), 진로(63개, 27.15%), 상담(49개, 21.12%), 경험(23개, 12.06%), 스포츠(13개, 5.60%)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역량 중 기술은 의사소통(130개, 66.66%), 내담자 돌봄(65개, 33.33%)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역량 중 태도는 내담자 포용(159개, 69.13%), 전문성 재고(71개, 30.86%) 순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recognized by school sports coache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161 school sports coaches who were registered in th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open-end questionnaires on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and inductive content analysis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derived through the above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s of career counseling for school sports coaches were academic and occupational (198, 57.39%), self-awareness and understanding (108, 31.30%), career (30, 8.69%), and advice (9, 2.60%). Second, the knowledge of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of school sports coaches were academic guidance (79, 34.05%), career (63, 27.15%), counseling (49, 21.12%), experience (23, 12.06%), and sports (13, 5.60%). Third, the skills of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of school sports coaches were communication (130, 66.66%), student care (65, 33.33%). Fourth, the attitude of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of school sports coaches were student inclusive (159, 69.13%), and reconsider professionalism (71, 30.86%).

Key words : School Sports Coaches, Athlete-Student,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 kyungjikim88@gmail.com

I. 서론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응답자 중 41.6%의 청소년이 진로와 취업에 크게 불안감을 느끼며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존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진로교육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고 불투명한 진로설계에 대한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임연지, 2021.07.30.). 진로란, 개인의 생애에서 경험하는 일의 총체로서 이른 시기에 시작하여 은퇴하는 시기까지 지속되는 발달적 개념이며, 진로교육은 개인의 삶에 필요한 생애역할평생학습일여가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준비하는 학습경험을 말한다(류영철, 2016).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하고 정부 주도로 장기간에 걸쳐 진로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0년 2월 교과부, 복지부, 노동부 3개 부처에서는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발표를 시작으로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되면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학교현장에는 진로진학상담을 전담하는 교사가 배치되고,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이 강화되었으며 자유학기제를 거쳐 자유학년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는 이미 진로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호소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수반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학교진로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체육계열에서도 진로교육을 위한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최운소, 이예슬,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들에게 진로는 여전히 소원한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매년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2019년, 2020년 2년 연속 학생 희망직업 1위가 운동선수로 나타났다(교육부, 2021). 본 조사는 2007년부터 실시되어왔는데, 부동의 1위였던 교사에서 지 지난해 이후 그 영광을 운동선수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초·중·고등학교 희망진로로 선택한 운동선수들 대부분은 자신의 진로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체육 영역에서 선수들은 최정상 선수로 자리잡기 위하여 유년시절부터 운동에만 매진하며 매순간 치열한 경쟁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 경쟁에서 중도에 탈락한 학생선수들은 진로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자기 자신을 탐색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냉혹한 사회에 합류하게 된다(장덕선, 한우리, 오원석, 이정선, 2020).

학생선수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과 선수로서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진로에 있어서는 학생보다는 선수로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학생선수로서 갖는 특수성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포괄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다른 진로교육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체육계에서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 등 주관으로 학생선수 진로캠프 등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체육인 진로지원을 위한 센터가 개소하여 진로교육, 검사, 취업알선, 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여전히 진로에 있어

학생선수는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지속적인 연구주제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학생선수 혹은 운동중단선수의 진로경로를 탐색한 연구(박창범, 2013; 차은주, 김영재, 2012; 한태룡, 정영린, 서희진, 2010),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방향성 제시, 교과목 개발 혹은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연구(권형일, 최경근, 편도영, 2020; 권형일, 최미화, 2020; 손환, 홍은아, 2014; 한시완, 손환, 2018), 진로와 관련한 제도적 혹은 정책적 접근의 연구(김경원, 2014; 오원석, 백진호, 2017),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검사지 개발 연구(권형일, 방신웅, 한시완, 유정애, 2016; 권형일, 최경근, 최미화, 2020; 권형일, 한시완, 2017a, 2017b), 진로상담과 관련하여 방법론적인 접근 또는 진로상담이 진로탐색 행동과 관계를 구명한 연구(남진아, 진승태, 2021; 장호중, 2006)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되어 왔다.

다만 체육계열 진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최운소, 이예슬, 2021)에서 이제까지 체육계열에서 수행되고 있는 진로 관련 연구에서 체육계열 진로에 관한 전문가역량에 관한 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에도 거시적 관점에서 주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가 추동하는 핵심은 학생선수들이 겪는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확인하고 도울 수 있는 관계자 중 최일선에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상담역량이다. 학교현장에서 대부분의 중등학교가 학생 대상의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은 진로상담교사와 함께 담임교사가 분담하고 있다(정운경, 장현진, 방혜진, 2017).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진로상담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교사의 진로상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체육계에서 학생선수의 진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상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 연구가 학생선수의 진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진로상담역량을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함양해나가도록 소중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진로상담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인식하는 진로상담역량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기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진로상담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진로상담에 필요한 역량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인식하는 진로상담 역량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각급의 학교운동부 소속인 지도자를 모집단으로하여 유목적 표집방법에 의해 165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거나 응답내용이 누락된 4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61부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인 | 구분 | 빈도(n) | 백분율(%) |
|--------------|--------------------------|-------|--------|
| 성별 | 남자 | 126 | 78.3 |
| | 여자 | 35 | 21.7 |
| 소속 | 초등학교 | 27 | 16.8 |
| | 중학교 | 64 | 39.8 |
| | 고등학교 | 70 | 43.5 |
| 종목 | 육상, 수영, 사이클, 역도, 근대5종 | 43 | 26.7 |
| | 양궁, 사격, 볼링 | 19 | 11.8 |
| | 테니스, 스쿼시, 탁구, 배드민턴 | 8 | 4.9 |
| | 태권도, 검도, 복싱, 유도, 펜싱, 레슬링 | 25 | 15.5 |
| 지도경력 | 10년 미만 | 73 | 45.3 |
| | 10년 이상 | 88 | 54.6 |
| 진로상담 경험 | 있다 | 141 | 87.6 |
| | 없다 | 20 | 12.4 |
| 진로상담 필요성 | 있다 | 159 | 98.8 |
| | 없다 | 2 | 1.2 |
| 진로상담교육 참가 의사 | 있다 | 152 | 94.4 |
| | 없다 | 9 | 5.6 |

2. 자료수집

이 연구는 개방형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먼저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소속, 종목, 지도경력, 진로상담유무, 진로상담의 필요성, 진로상담을 위한 교육참여의사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인식하는 진로상담역량을 탐색하기 위하여 4가지로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하였다. 문항은 첫째, ‘진로상담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 나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 ‘진로상담 시 상담자로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셋째, ‘진로상담 시 상담자로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넷째, ‘진로상담 시 상담자로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이다.

이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지도자가 직접 자기기입법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현장에서 바로 수거하였다. 또한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원칙에 따라 개방형 설문지에 있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통계 분석과 논문작성을 활용하는데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 귀납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우선 수집된 자료를 노트북에 전부 전사하여 문서화 하였고 해당 자료를 여러 차례 읽어가며 의미 단위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원자료를 세부영역, 일반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스포츠교육학 전공 박사 2인과 진로교육 전문강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에게 연구를 진행하는 전 과정과 분석한 결과를 검토받으며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에 대한 개념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진로상담에 대해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상담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탐색하였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상담역량 개념화에 대한 것은 345개의 원자료가 수집되었으며, 12개의 세부영역과 4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일반영역은 학업 및 직업(198개, 57.39%), 자기 인식 및 이해(108개, 31.30%), 진로(30개, 8.69%) 그리고 조언(9개, 2.60%)인 총 4개로 범주화되었다. 일반영역별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학업 및 직업에서는 학교(79개, 39.89%), 진학 관련(53개, 26.76%), 직업 정보(52개, 26.26%), 직업(14개, 7.07%)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인식 및 이해에서는 생애(58개, 53.70%), 자기 파악(39개, 36.11%), 부정적 감정 및 태도(11개, 10.18%), 긍정적 감정 및 태도(9개, 8.33%)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는 경력 전환(16개, 53.33%), 진로 설계 및 계획(8개, 26.66%) 그리고 진로 정보(6개, 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언은 조언자(9개, 100%)를 포함하고 있다.

진로상담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으로 정의되고 있다(진로교육법 제2조, 2015). 진로상담을 실제 실시하는 주체인 상담자가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 것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 달리 인식할 수 있다. 앞선 다수의 연구에서 여러 환경적 차이를 가진 교사들의 진로상담에 대한 인식을 다수 보고되어왔다(류지호, 2008; 송은숙, 2016; 조경화, 2014; 최인중, 2020). 이는 각 교사들의 진로상담에 대한 인식, 그 직무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요구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체육계에서 수행된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며, 특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에 대한 인식 등에 접근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진로상담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들이 진로상담을 통해 어떤 상담문제를 다루게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진로상담자로서 역할과 직무를 어떻게 받아드리고,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나가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표 2. 진로상담에 대한 개념화

| 원자료 | 세부영역 | 일반영역 |
|--|-------------------------|-----------------------------|
| 대학(36), 상급학교(9), 성적(8), 학교(8), 학생(5), 고등학교(4), 학업(3), 무슨 과(2), 원하는 대학(2), 학위(1), 중학교(1) | 학교(79, 39.89%) | 학업 및 직업 (198, 57.39%) |
| 진학(43), 학교 진학 문제(4), 학교 선택(4), 진학 상담(2) | 진학 관련(53, 26.76%) | |
| 직업(23), 취업(13), 회사 연봉(8), 직업 선택 및 고민(6), 미래직업(1), 좋은 조건(1) | 직업 정보(52, 26.26%) | |
| 실업팀(10), 프로팀(3), 군대(1) | 직업(14, 7.07%) | |
| 미래(36), 장래 희망(11), 인생(7), 현재(4) | 생애(58, 53.70%) | 자기 인식 및 이해 (108, 31.30%) |
| 목표 확인(10), 적성(9), 꿈(8), 성향(4), 성격유형(1), 좋아하는 일(2), 하고 싶은 일(2), 해야 하는 일(1), 마음가짐(1), 심리상태 파악(1) | 자기 파악(39, 36.11%) | |
| 고민(4), 불안(3), 경쟁(1), 포기(1), 실패(1), 강요(1) | 부정적 감정 및 태도(11, 10.18%) | |
| 성공(4), 행복(2), 희망(2), 도전(1) | 긍정적 감정 및 태도(9, 8.33%) | |
| 은퇴(5), 은퇴 후 직업(5), 사회생활 및 적응(4), 또 다른 인생(1), 앞으로의 미래(1) | 경력 전환(16, 53.33%) | 진로(30, 8.69%) |
| 진로 설계 (4), 미래에 대한 계획(4) | 진로 설계 및 계획(8, 26.66%) | |
| 진로 관련 정보(6) | 진로 정보(6, 20%) | |
| 지도자(3), 조연자(2), 선생님(1), 안내자(1), 길잡이(1), 롤모델(1) | 조연자(9, 100%) | |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역량에 대한 인식

역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하여 (Lucia & Lepsinger, 1999),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인식하는 진로상담 역량을 탐색하였다. 역량모형이란 조직에서 특수한 직무나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을 체계화한 것으로, 역량모델링을 통한 결과물인 역량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류영철, 2014). 이 체계를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인식하는 진로상담에 필요한 역량을 토대로 역량모형을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진로상담 시 상담자로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232개의 원자료가 수집되었으며, 12개의 세부영역과 5개의 일반영역으로 범

주화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일반영역은 진학(79개, 34.05%), 진로(63개, 27.15%), 상담(49개, 21.12%), 경험(23개, 12.06%), 스포츠(13개, 5.60%)인 총 5개의 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진학에서는 상급 학교 정보(67개, 84.81%), 팀 관련 정보(12개, 15.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에서는 직업 정보(31개, 49.20%), 진로 지식(27개, 42.85%), 취직 준비(5개, 7.93%)로 나타났다. 상담의 경우 내담자 파악(40개, 81.63%), 상담 기법(6개, 12.24%), 상담 지식(3개, 6.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의 경우 선수 시절 경험(16개, 69.56%)과 직업 관련 경험(7개, 30.43%)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는 종목 관련 지식(10개, 76.92%), 운동 관련 지식 (3개, 23.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진로상담역량 중 지식

| 원자료 | 세부영역 | 일반영역 |
|--|----------------------|----------------|
| 상급 학교의 정보(43), 학교에 현 상황(12), 입시 체계(7), 입시 제도(3), 학교의 혜택(1), 무조건 합격 가능한 학교정보(1) | 상급 학교 정보(67, 84.81%) | 진학(79, 34.05%) |
| 각 팀의 상황(7), 실업팀 정보(4), 받아줄 프로팀(1) | 팀 관련 정보(12, 15.18%) | |
| 다양한 직업 정보(18), 은퇴 후 직업 종류(6), 체육계 직업군(5), 시대별 흐름(2) | 직업 정보(31, 49.20%) | 진로(63, 27.15%) |
| 진로에 대한 다양한 지식(16), 진로의 정보(9), 진로에 대한 전망(2) | 진로 지식(27, 42.85%) | |
| 자격증 취득 방법(2), 직업 선택에 있어 필요한 과정(3) | 취직 준비(5, 7.93%) | |
| 선수의 장단점 파악(18), 선수의 성향 이해(9), 선수의 심리 파악(8), 대상자의 상황(5) | 내담자 파악(40, 81.63%) | 상담(49, 21.12%) |
| 상담하는 방법(2), 소통 방법(2), 언어의 구사력(1), 상대방에 대한 태도(1) | 상담 기법(6, 12.24%) | |
| 상담을 잘하는 방법(2), 상담을 하기 위한 지식(1) | 상담 지식(3, 6.12%) | |
| 선수 경험(15), 운동 경험(1) | 선수 시절 경험(16, 69.56%) | 경험(23, 12.06%) |
| 경험에 따른 방향 제시(5), 지도자가 되는 방법(2) | 직업 관련 경험(7, 30.43%) | |
| 종목의 전문 지식(6), 종목의 특성(3), 종목에 미래(1) | 종목 관련 지식(10, 76.92%) | 스포츠(13, 5.60%) |
| 최신훈련방법(2), 운동기능(1) | 운동 관련 지식 (3, 23.07%) | |

표 4. 진로상담역량 중 기술

| 원자료 | 세부영역 | 일반영역 |
|--|---------------------|--------------------|
| 다양한 정보 전달하기(26), 대화의 기술(14), 설득력(9), 올바른 언어 선택(9), 이해가 쉬운 설명(8), 대화의 방법(6), 정확한 의사표현(1), 신뢰를 줄 수 있는 답변해 주기(1), 경험 말해 주기(1) | 말하기(75, 57.69%) | 의사소통(130, 66.66%) |
| 귀담아 들어주기(23), 공감하기(7), 선수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기(6), 상담자에게 집중(2), 듣는 마음(1) | 들어주기(39, 30%) | |
| 리포형성(8), 친근한 표현(4), 눈높이를 맞춰 응대(2), 대화할 때 고개 끄덕여 주기(1), 미소(1) | 비언어적 소통(16, 12.30%) | 내담자 돌봄(65, 33.33%) |
| 선수 특성 파악(14), 선수 심리 파악(4), 선수가 원하는 방향을 파악(3), 학부모의 생각이나 방향을 파악(2),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파악(1) | 파악하기(24, 36.92%) | |
| 이해력(10), 선수 마음을 이해하기(9), 심리적 성향 이해(2) | 이해하기(21, 32.30%) | |
| 책임감 가지고 진심과 믿음을 주기(13),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심어 주기(3), 포용력(2), 배려하기(2) | 감정전달(20, 30.76%) | |

다음은 ‘진로상담 시 상담자로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195개의 원자료가 수집되었으며, 6개의 세부영역과 2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일반영역은 의사소통(130개, 66.66%) 그리고 내담자 돌봄(65개, 33.33%)인 총 2개의 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에서는 말하기(75개, 57.69%), 들어주기(39개, 30%), 비언어적 소통(16개, 12.3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담자 돌봄은 파악하기(24개, 36.92%), 이해하기(21개, 32.30%) 그리고 감정 전달(20개, 30.7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상담 시 상담자로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230개의 원자료가 수집되었으며, 7개의 세부영역과 2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일반영역은 내담자 포용(159개, 69.13%), 전문성 재고(71개, 30.86%)인 총 2개의 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내담자 포용에서는 경청(80개, 50.31%), 이해(46개, 28.93%), 존중(33개, 20.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 재고에서는 상담 준비(21개, 29.57%), 현실적 조언(20개, 28.16%), 긍정적 표현(19개, 26.76%) 그리고 분위기 형성(11개, 15.49%)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의 진로교육과 관련한 문헌연구를 통해 도

출된 역량은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적용측면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류영철, 2014), 정철영, 서우석, 조동섭, 박행모(2014)는 교과교사와 담임교사의 진로상담에 필요한 역량을 구분하였고 김은경(2014)은 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 도출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역량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엄미리, 권정연(2017)의 연구에서는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 ‘진로특성 진단 및 해석’,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제공’, ‘교과통합 진로교육 실시’, ‘진로관련 비교과 활동 운영·지원’, ‘진로 연계 학습 촉진’, ‘진로 경로’, ‘진로 경로 설계 조력’, ‘학부모 진로상담’, ‘진학(취업)준비 지원’ 총 7개의 역량군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원의 역량요구도가 대상자의 진로 발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급별 역량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결과를 차용하여 체육계에 일반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특수성을 고려된 진로상담역량을 고도화해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및 직업세계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진로상담 수요가 점차 증

표 5. 진로상담역량 중 태도

| 원자료 | 세부영역 | 일반영역 |
|---|--------------------|---------------------|
| 잘 들어 주기(57), 잘 들어주는 태도 및 자세(13), 잘 듣기 위한 노력(9), 들어줄 준비(1) | 경청(80, 50.31%) | 내담자 포용(159, 69.13%) |
| 선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20), 이해(10), 선수의 눈높이로 생각하기(8), 공감 능력(6), 선수의 생각 이해하기(1), 선수의 미래 이해하기(1) | 이해(46, 28.93%) | |
| 진솔한 마음(12), 선수 의견 존중(7), 존중(5), 믿음과 신뢰(5), 선수 인격존중(2), 기다려 주기(2) | 존중(33, 20.75%) | |
| 진정성(9), 많은 정보 습득(4), 선수 개인적 특성 파악(3), 진지한 자세(3), 상담준비 철저(1), 적극적인 자세(1) | 상담 준비(21, 29.57%) | 전문성 재고(71, 30.86%) |
| 선수 수준에 맞는 진로방향 제시(11),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6), 잘못된 선택 바로 잡아주는 것(2), 객관적인 입장(1) | 현실적 조언(20, 28.16%) | |
| 진심 어린 자세(8), 밝은 표정(4), 긍정적인 모습(3), 애정어린 말투(2), 부드러운 말투(1), 따뜻한 말투(1) | 긍정적 표현(19, 26.76%) | |
| 소통(4), 격 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3), 부드러운 분위기(2), 강요하지 않기(1), 두려워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1) | 분위기 형성(11, 15.49%) | |

가하고 있다(방혜진, 김봉환, 2020). 일선 학교에서도 진로전담교사 인력만으로 학생들의 충분한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담임교사도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진로전담교사와의 협업, 협력이 매우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엄미리, 권정언, 2017). 이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지원사업에만 의존하거나, 진로강사 혹은 진로상담가만으로 역할을 미루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주지할 수 있다. 정윤경, 장현진, 방혜진(2017)이 제시한 것과 같이 초기상담과 심화상담을 구분하여 담당하는 것도 진로상담 여건을 개선하는 접근이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진로상담에 주체로서 참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함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인식하는 진로상담 역량을 탐색하였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각급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개방형설문을 실시하였고,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에 대한 개념은 학업 및 직업(198개, 57.39%), 자기 인식 및 이해(108개, 31.30%), 진로(30개, 8.69%), 조언(9개, 2.6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역량 중 지식은 진학(79개, 34.05%), 진로(63개, 27.15%), 상담(49개, 21.12%), 경험(23개, 12.06%), 스포츠(13개, 5.60%)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역량 중 기술은 의사소통(130개, 66.66%), 내담자 돌봄(65개, 33.33%)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역량 중 태도는 내담자 포용(159개, 69.13%), 전문성 재고(71개, 30.8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통해 후속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인식한 진로상담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식, 기술, 태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접근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류영철(2014)의 접근과 같이, 역량의 필요수준과 수행수준을 분석하여 수준간 차이를 통해 수행수준을 재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즉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인식하는 필요수준과 수행수준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한 후속연구는 추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진로상담역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평가지표개발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관점에서 진로상담역량을 탐색하였다. 후속연구에서 지도자의 진로상담역량에 대한 요구를 실제 내담자인 학생선수 입장에서 조사한다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고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선된 진로상담역량은 현장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물론 학생선수 모두에게 한층 더 나은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학교라는 울타리, 전문체육 영역 전반 그리고 나아가 현대의 직업세계 모두가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선수의 진로상담에 가장 최일선에 이루어지는 진로상담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변화에 부합하는 진로상담역량을 계속적으로 조망하고 논의하는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1).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권형일, 방신웅, 한시완, 유정애(2016). 학생선수를 위한 체육진로흥미검사지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5(5), 279-290.
- 권형일, 최경근, 최미화(2020). 대학 학생선수를 위한 체육진로흥미검사지 축약버전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29(2), 509-520.
- 권형일, 최경근, 편도영(2020). NCAA의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본 국내 대학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방향성. **한국체육과학회지**, 29(2), 469-480.
- 권형일, 최미화(2020). 대학생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교육 교과목 개발의 필요성 및 교과내용 제안. **한국체육학회지**, 59(2), 109-119.
- 권형일, 한시완(2017a). 대학생 학생선수용 체육진로흥미검사지 개발 및 타당화 검증.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 5(2), 13-24.
- 권형일, 한시완(2017b). 학생선수용 체육진로흥미검사지의 다집단 동일성 검증. **한국체육과학회지**, 26(3), 825-833.
- 김경원(2014). 운동선수의 경력개발과 진로전환을 위한 정책 방안: 독일의 이중 경력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운동학술지**, 16(4), 101-113.
- 김은경(2014).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 척도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남진아, 진승태(2021). 대학 태권도전공생의 진로발달을 위한 온라인 진로상담의 활용 가능성. **국기원태권도연구**, 12(2), 1-13.
- 류영철(2014).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모형 개발. **한국교육**, 41(4), 25-51.
- 류영철(2016). 일반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지표 개발. **사회과학논총**, 19, 95-124.
- 류지호(2008). **초등학교 교사의 진로상담에 대한 인식과 활동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창범(2013). 여자 대학생 운동선수의 취업 경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5), 481-500.
- 방혜진, 김봉환(2020).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중·고등학생의 온라인 진로상담 호소문제 분석: 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상담 사례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연구**, 33(4), 69-99.
- 손환, 홍은아(2014). 한국형 학생선수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53(3), 621-633.
- 송은숙(2016). **일반고 3학년 진로진학지도에 대한 담임교사와 진로**

- 진학상담교사의 인식 비교 : 중요도와 실행도에 의한 우선순위 분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 엄미리, 권정연(2017).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의 핵심역량 도출에 관한 연구.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20(2), 125-160.
- 오원석, 백진호(2017). 체육인의 직업전환과 진로탐색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5), 139-150.
- 임연지(2021.07.30.). 청소년 멘탈관리 시급, 41.6% 진로에 부정적 변화 느껴. 시사매거진,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888>에서 검색.
- 장덕선, 한우리, 오원석, 이경선(2020). 청소년 은퇴선수를 위한 AC T 기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31(3), 13-26.
- 장호중(2006).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상담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5(4), 149-157.
- 정운경, 장현진, 방혜진(2017). 학교 진로상담 여건 개선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 정철영, 서우석, 조동섭, 박행모(2014). 교사의 진로교육 이해를 위한 교원양성과정 실태 분석 연구. 교육부.
- 조경화(2014).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진학상담교사 직무수행에 대한 인식과 요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진로교육법(2021.03.23. 법률 제17954호)
- 차은주, 김영재(2012).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직업경로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1(4), 125-136.
- 최윤소, 이예슬(2021). 체육계열 진로 연구동향 분석.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 9(1), 131-141.
- 최인중(2020). 경상남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인식하는 직무 역할 및 교육 요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시완, 손환(2020).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교육의 방향 및 체계 탐색.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827-838.
- 한태룡, 정영린, 서희진(2010). 학생선수의 진로경로 실태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2), 135-148.
- Lucia, A. D & Lepsinger, R(1999). *The Art and Science of Competency Model*. San Francisco. Jossey-Bass Preiffer.

